

## 존 갈리아노의 컬렉션에 나타난 헤드웨어의 디자인 특성

성 광 속

동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부교수

### The Characteristics of Headwear Design by John Galliano's Collections

Sung, Kwang-Sook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Tong-Myong University

#### Abstract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headwear design by John Galliano's collections had been placed under the interpreting the immanent characteristics of presented in external things.

His headwear design was found to have following characteristics: ethnic forms, historical forms, natural modeling forms, artificial forms, false hair forms and abstract forms.

And his headwear design was found to have folling immanent characteristics: expaned exaggeration, introduced into existing form and reconstruction, mixed with different motives, change of texture, introducing and parody by natural and artificial form, pure abstacked construction.

Furthermore, it can be identified that immanent characteristics and external things are mutually linked.

**Key Words** : Headwear(헤드웨어), John Galliano(존 갈리아노), Characteristics of Design (디자인 특성)

#### 1. 서론

복식은 통상 의복과 액세서리(accessory)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신체를 감싸는 의복의 개념을 제외하면 액세서리가 남게 되는데 액세서리는 모자, 장갑, 구두, 벨트, 머리장식, 아이웨어(eyewear),

머플러, 스타킹, 그리고 여러 가지 주얼리 (jewelry) 등의 부속품을 지칭한다. 그동안 디자인으로 연구된 분야는 주로 의복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액세서리 분야는 모자<sup>1)</sup>에 소수가 있으며 장갑, 구두 등은 계측이나 패턴, 기능성에 따른 디자인 개발이나 복식사적인 연구를 제외한 디자인 분야<sup>2)</sup>는 거의

Corresponding author: Sung, Kwang-Sook, Tel. 82-51-629-2123 , Fax.82-51-629-2218  
E-mail: kssung@tu.ac.kr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액세서리 분야 중 머리를 장식하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선행연구를 찾아 보던 중, 머리에 관한 액세서리 즉 모자와 머리장식에 관한 헤드웨어(headwear)개념의 연구가 전혀 부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더욱이 현재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에 의해 모자와 헤어장식의 구분이 모호하여 분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모자인지 헤어장식인지의 구성적인 의미보다는 헤어를 장식하는 의미가 더욱 핵심적이라는 디자인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머리장식 즉 헤드웨어 연구의 부재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본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헤드웨어 디자인을 중심으로 디자이너의 작품을 살펴본 바 특히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의 헤드웨어에 주목하게 되었다.

현대패션은 부조화, 비정상성, 무형식, 불확정, 비정형, 다의성을 지니며, 현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인식해온 미적 대상 외에 지나침과 과장의 의미를 내포하는 반미학적인 미를 미적 쾌감으로 인식하여 다양한 미적 감수성을 지니며 미적 다양성을 추구한다. 이러한 경향은 갈리아노가 의상 및 연관된 모든 것들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조화시키는 토탈 코디네이션을 통해 잘 표현되고 있는데, 그의 작품들은 저마다 독특하고 과장된 헤어스타일과 머리장식을 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인해 갈리아노에 대해

의상 뿐 아니라 메이크업<sup>3)</sup>, 코디네이션<sup>4)</sup> 등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있다. 이처럼 그는 ‘새롭게 하기’, ‘낯설게 하기’의 포스트모던 미학의 진수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의 작품들은 실제로 머리 부분을 제외한다면 디자인 컨셉을 바로 파악하기 어려운 작품도 많아 헤어의 장식이 의상디자인의 컨셉을 완성하는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갈리아노의 헤드웨어 연구를 통해 현재 패션컬렉션의 헤드웨어가 어떻게 디자인되고 있는지를 부분적으로라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의 크리스찬 디올(Christan Dior) 및 존 갈리아노의 컬렉션 53회를 전부 조사하여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캡(cap)이나 햇(hat)의 스타일이 제시된 컬렉션을 제외하고 <표1>과 같이 총 35회의 컬렉션에서 880작품을 자료로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의상과의 조화를 관찰하는 관점은 제외하였으며 헤드웨어만을 따로 보고 분석하였고, 각 컬렉션의 컨셉이나 이미지를 파악하여 전체 의상의 컨셉을 염두에 두고 헤드웨어를 관찰하였다. 컨셉을 파악하는 것은 스타일 닷 컴(www.style.com)의 컬렉션에서 각 컬렉션마다 게시한 논평(Review)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표 1> 자료로 사용된 컬렉션과 자료의 수

년도	컬렉션		Christan Dior				Jhon Galliano	
	RTW	CTR	RTW	CTR	RTW	RTW		
	S	S	F	F	S	F		
2009	4	10		/	34	30		
2008		18		16	27	47		
2007		39	22	45	12	27		
2006				31				
2005		21		24	49			
2004		14		29		44		
2003		30	14	9	34	20		
2002	22	27	22	13	7	42		
2001		17	26	38	16			

( / 는 미발표 컬렉션, 숫자는 자료의 수. RTW 는 ready to wear, CTR 은 couture, S는 summer, F 는 fall ) 총, 35회 880개

디자인의 특성은 형식과 내용의 측면으로 분석하였으며, 형식인 외적조형, 즉 외적인 특성을 먼저 관찰하고 파악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하여 내용이 되는 내적 의미 즉 내적 특성을 규명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헤드웨어의 개념과 선행연구

페어차일드 패션대사전<sup>5)</sup>에 “headwear는 머리를 가리는 것, 장식적 기능, 실용적 기능 혹은 둘 모두로 쓰일 수 있다고 되어있다. 동의어로는 헤드 드레스가 있다”고 하였으며, 패션용어사전<sup>6)</sup>에 “헤드드레스는 1.머리의 장식적인 덮개. 2.리본, 꽃, 빗과 같은 것으로 머리를 장식하는 방법”이라고 되어있다.

헤드웨어는 모자를 비롯하여 머리를 장식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현재 헤드웨어에 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데, 헤드웨어의 개념이 포함하고 있는 모자의 디자인이나 조형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김은실(2003)<sup>7)</sup>은 ‘필립 트레이시(Philip Treacy)작품에 나타난 모자의 조형성과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조형성을 형태, 소재, 장식의 측면으로 고찰하였고, 미적특성을 초현실적 특성, 입체적 특성, 율동적 특성, 미래지향적 특성이 내포되어있음을 밝혔다. 또한 김은실(2005)<sup>8)</sup>은 ‘현대패션에 나타난 모자디자인의 경향에 관한 연구’에서 1990년 이후의 모자디자인의 특성을 예술양식의 영향을 받아 입체주의적 특성, 초현실주의적 특성, 미래주의적 특성, 복고적 특성, 민속적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유현정(2006)<sup>9)</sup>은 ‘20세기 이후의 여성모자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에서 형태 및 구성을 입체형, 혼합형, 평면형, 자유형으로 명명하였으며, 서양모자의 조형성을 20세기 전반기 형태는 입체형이 우세했으나 1990년대 부터는 혼합형과 평면형이 빈번히 등장하면서 3가지 유형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고 밀리너리들의 모자는 자유형이 증가추세에 있었으며 모자의 주 소재는 펠트였으나 1970년 전후 니트 제작 방식과 평면형 모자가 선호된 후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장식은 리본, 꽃, 깃털이 기본 장식이며, 20세기 후반기로 갈수록 약화되고 단순해

졌다고 하였다. 이영재(2008)<sup>10)</sup>는 ‘영화에 나타난 여성모자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을 형태(입체형, 평면형, 장식형)와 장식(장식형)의 측면으로 고찰한 바 있다.

헤어장식에 관한 선행연구는 헤어미용관련 연구<sup>11)</sup>를 제외하면 패션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 2. 갈리아노의 작품세계와 선행연구

새로운 아방가르드 스타일을 선보이며 1980-1990년대의 패션계를 평정한 갈리아노는 1960년 스페인의 항구 도시 지브롤터(Gibraltar)에서 태어났으며, 이스트 런던 스쿨(East London School)을 거쳐 세인트 마틴스(Saint Martins) 예술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1987년에 이어 1994년과 1995년 세 번에 걸쳐 ‘올해의 영국 디자이너’로 선정되었다.<sup>12)</sup> 1995년 말 갈리아노는 지방시의 수석디자이너로 발탁되어 지방시의 오픈 꾸뛰르 디자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이에 힘입어 1996년 12월에 크리스찬 디올 하우스에 입성하게 되었다.

예술성은 뛰어났지만 상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예술적인 점이 존 갈리아노의 감성인데, 여성을 아름답게 표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그는 과거지향의 에로틱한 표현을 전면에 두고 여러 요소들을 흡수하여 새롭게 현대적으로 풀어가는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다.<sup>13)</sup>

갈리아노 디자인의 미적인 특성과 조형성은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하여 연구된 바 있다. 콜린 맥도웰(Colin Mcdowell)은 갈리아노를 로맨틱 리얼리스트(romantic realist)의 혁명가라고 칭하며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로맨스(romance)라고 한마디로 요약하며 이는 판타지(fantasy)적 로맨티시즘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로맨스는 그의 작품들에서 과거와의 향수, 영국 예술(English art), 스페인적 전통, 그리고 프랑스 역사와의 절충주의 등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sup>14)</sup>

김명섭(1998)은 ‘존 갈리아노의 작품세계와 미적 특성’의 연구를 통하여 갈리아노의 작품의 외적 조형성을 곡선과 장식성의 추구, 여러 요소의 혼합, 완벽한 테일러드 기법과 바이어스 커팅(cutting)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80년대에는 엔드로지너스풍과 유니섹스모드를 바탕으로 하는 남녀의 성을 구분짓는 특징을 배제하여 모호하고 상호교환의 가능한 보더리스(boderless)적 경향을 보이며 90년대에는 여성의 인체의 특징을 자연스럽게 강조하는 글래머러스 스타일로 변화되어 간다고 하였다.<sup>15)</sup>

박혜원(1999)은 '존 갈리아노의 디자인 연구'에서 갈리아노 디자인을 비형식적 형식성, 해체와 재구성, 탁월한 재단과 끝마무리 등을 꼽고, 갈리아노의 창조력에 의해 과거의 의상이 해체 분해되고 실험적 소재들이 고도의 재단력에 의해 재구성되어 역동적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했다.<sup>16)</sup>

구미지(2001)는 '디오르 작품에 대한 갈리아노의 현대적 재해석에 관한 연구'에서 민속적 디테일의 사용, 직물의 새로운 표현기법, 특징적인 구성방법, 차별화된 색 대비 방법 등으로 그 특성을 도출하였다.<sup>17)</sup>

진경옥(2005)은 '존 갈리아노 패션쇼에 나타난 현대패션 코디네이션 특성'에서 갈리아노의 작품특성을 에로티시즘으로 표현되는 낭만주의, 매혹적인 역사문화주의, 해체를 통한 역동적 구성주의, 실험적 창조주의로 그 특성을 요약하였다. 그리고 갈리아노의 패션쇼에 표현된 현대코디네이션의 특징을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의 토달구성에 의한 패션이미지 극대화, 대담한 장식을 통한 혁명적 코디네이션, 색채의 향연과 조화를 통한 코디네이션, 실험적 착장에 의한 코디네이션 개념 확대 등으로 분석하였다.<sup>18)</sup>

### III. 갈리아노 컬렉션의 헤드웨어 디자인의 특성

본 연구는 외적인 특성과 내적인 특성을 구분지어 그의 작품의 분석을 하였으며, 외적인 특성과 내적인 특성은 서로 중복되는 개념이나 논의가 많아 외적특성은 간략하게 범주화된 유형만을 제시하며, 내적인 특성은 구체적으로 연구된 내용을 논의하고자 한다.

#### 1. 갈리아노 컬렉션의 헤드웨어 디자인의 외적 특성

갈리아노의 헤드웨어는 모자 디자인의 경우에도 선행연구의 기준대로 평면인가 입체구성인가의 관점을 적용하기에는 우리가 있는데, 그의 작품은 과도한 장식성을 추구하거나 확대 과장하여 표현되는 경우가 많고, 하나의 조형물이 머리에 부착된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거의 입체형이며 자유형으로 보아야 한다.

그의 헤드웨어는 패로디(parody), 하이브리드(hybrid), 퓨전(fusion), 해체 등의 포스트모던적인 성격을 뒀으로 인해 헤드웨어의 형태나 구조를 명확하게 구분지어 설명하기 어렵다. 그의 헤드웨어에서의 해체는 복식에서의 해체와 다르지 않는데 의미의 부정확성, 상호텍스트성, 기존구성방식의 파괴, 차연 등의 다양한 특성들이 관찰되어진다.

연구 결과, 민속적 조형, 역사적 조형, 자연형상적 조형, 인공물 형상적 조형, 가모형 조형, 추상적 조형으로 외적인 특성을 분류할 수 있었다 (표 1).

민속적 조형은 러시아풍, 발칸풍, 예맨풍(그림 1), (이하 모든 그림의 출처는 [www.style.com](http://www.style.com)의 해당시존작품으로 동일하여 따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음)일본풍(그림 2), 중국풍, 몽골풍, 티벳풍(그림 3), 인도풍, 에스키모풍, 페루풍, 멕시코풍 등 다양한 민속풍의 헤드웨어가 각 나라의 민속풍에 갈리아노 특유의 해체와 재구성으로 민속적인 것이 그대로 오기보다는 현대적인 것으로 재해석하거나 현대적인 컨셉과 믹스하여 새로운 민속풍을 창조하여 제시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민속적인 이미지나 헤드웨어로 사용하지 않는 요소들을 수용하여 헤드웨어로 디자인하는 경우도 많다.

역사적 조형은 서양 복식의 역사에서 차용한 스타일의 헤드웨어인데, 크게 이집트풍(그림 4)과 유럽풍(그림 5-7)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민속적 조형과 마찬가지로 해체와 재구성으로, 역사적인 것이 그대로 오기보다는 현대적인 것으로 재해석하거나 현대적인 컨셉과 믹스하여 새로운 스타일로 제시된다.

인공물 형상적 조형은 인간이 만든 사물들에서 그 모습을 인용하거나 혹은 그 모습의 일부를 그대로 가지고 오거나 비슷한 모습으로 모방하는 디자인의



<그림 1> 갈리아노-2004F/RTW



<그림 2> 디올-2003S/CTR



<그림 3> 갈리아노-2002F/RTW



<그림 4> 디올-2004S/CTR



<그림 5> 디올-2006F/CTR



<그림 6> 갈리아노-2008F/RTW

특성으로 일종의 패로디라고 볼 수 있다. 사물의 고유한 용도나 특성을 부정하고 헤드웨어로 형상을 인용하는 갈리아노 만의 방식을 볼 수 있다. 예컨대 전등갓(그림 8)이나 받침접시, 깔때기 모양 등은 형상을 모방하여 디자인화한 작품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악기, 파넬트, 활, 가면, 아이 마스크, 투슈즈(그림 9), 선물상자, 트렁크, 지우산, 부채, 연등 등의 형상은 거의 그 모습대로 모방 재현되었다.

자연적 조형은 자연, 즉 식물이나 동물 등에서 그 모습을 인용하거나 혹은 그 모습의 일부를 그대로 가지고 오거나 비슷한 모습으로 모방하였다. 동물로는 물고기나 가재, 해마, 조개 같은 어류의 형상이 인용되거나 박쥐, 새, 새와 새둥지(그림10), 거북이 등의 형상이 모방되었다. 또한 짐승의 털이나 새의 깃털을 인용하여 짐승이나 새의 이미지를 연출하기

도 했다. 자연물의 형상인용은 특히 꽃이 압도적으로 많아 다양한 꽃 모양이 수많은 소재와 색상과 컨셉으로 다채롭게 표현되었다(그림 11). 그 외 나뭇가지와 솔가지, 짚, 대나무와 덧잎, 아이비 넝쿨 등이 인용되었다.

가모형(假毛形) 조형은 머리카락을 헤어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머리카락을 디자인화하여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머리카락의 한 가닥 한 가닥을 가죽이나 깃털, 비즈, 합성사로 소재를 환치하여 표현한 헤드웨어로 가발인지 헤드웨어인지 구별이 모호한 특성을 지닌다(그림 12). 그리고 마치 수세미처럼 아주 가는 웨이브를 한 머리카락모양의 합성실을 가지고 단발 길이 정도의 다양하고 풍성한 컬링헤어를 만들거나 정수리부분을 높이 부풀린 가는 웨이브의 롱헤어 스타일도 등장하였는데, 색상도 블랙을 비롯



<그림 7> 갈리아노-2008S/RT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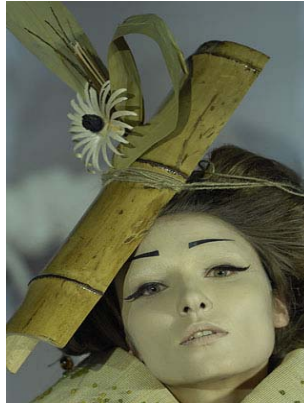
<그림 8> 디올-2008S/CTR



<그림 9> 디올-2007F/CTR



<그림 10> 디올-2005F/CTR



<그림 11> 디올-2007S/CTR



<그림 12> 디올-2003S/RTW

해 머리로는 사용되기 어려운 핑크, 오렌지, 옐로우 그린 등이 과감히 채택되었다(그림 13). 또한 짐승의 털을 이용해 부풀린 머리카락처럼 연출하여 여성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머리카락인지 헤드웨어인지 불분명한, 탈 경계적인 갈리아노 특유의 시각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모자 변형형 조형은 기발하고도 독창적인 아이디어보다는 기존에 있는 모자 스타일을 기본으로 하여 새로운 조형적 감각을 가미하여 창조된 스타일을 연구자가 모자변형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경우는 기존의 모자 스타일에 다른 모자 스타일을 결합하여 새롭게 하는 것과 기존의 모자스타일에 일부를 바꾸어, 예컨대 형태는 그대로하고 소재를 전혀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그림 14), 일부분의 형태를 변형하거

나 크기를 확대, 혹은 축소하기로 새롭게 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그림 15-16).

비정형과 기하학적 추상 조형은 모자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스타일로서 모자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마치 하나의 조각이나 조형물처럼 구성된 형태를 말한다. 기하학적인 형태에부터 워라 규정짓기 어려운 비정형적인 형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소재도 스틸(steel), 메탈(metal), 페브릭(fabric), 펠트(felt), 털, 플라스틱, 와이어 넷(wire net), 깃털, 가죽, 글라스(glass), 종이 등 아주 다양하다. 또한 기하학적인 형태와 사실적인 모티브가 결합되거나 내추럴한 모티브와 팝 아트적인 모티브를 결합시키는 등 이질적 컨셉의 믹스 앤 매치 방식(mix & match)도 찾아 볼 수 있다(그림 17-18).



<그림 13> 갈리아노-2009S/RTW



<그림 14> 디올-2001F/RTW



<그림 15> 디올-2002S/CTR



<그림 16> 갈리아노-2007F/RTW



<그림 17> 갈리아노-2007S/RTW



<그림 18> 갈리아노-2003S/RTW

<표 2> 헤드웨어의 외적 특성

범주 유형	외적 특성
민속적 조형	러시아풍, 발칸풍, 일본풍, 중국풍, 몽골풍, 티벳풍, 인도풍, 예멘풍, 에스키모풍, 페루풍, 멕시코풍
역사적 조형	이집트- 뱀머리장식, 커치프, 왕관, 신상 유럽 - 버터플라이헤드드레스, 투구, 체인 메일 후드, 이콘햇, 코이프, 왕관, 티아라, 영국군위병모
자연 형상적 조형	식물- 다양한 꽃, 대나무, 나뭇가지, 솔가지, 밀짚, 아이비, 동물- 박쥐, 새와 새둥지, 깃털, 조개, 소라, 물고기, 가재, 해마, 게, 거북이
인공물 형상적 조형	손지갑, 악기(하프), 파렛트, 활, 여행용트렁크, 선물상자, 토슈즈, 신문지, ナイ프, 포크, 스푼, 동전, 강통, 아이 마스크, 전등갓, 발침접시
가모형 조형	뽕 스타일의 스트레이트헤어 비즈가모, 비닐가모, 가는 웨이브의 합성가모, 깃털가모, 짐승털 가모
모자 변형형 조형	헬멧, 코이프, 디어스토커, 카플린, 움부르크, 톱 햇 등의 변형
비정형과 추상적 조형	추상형, 기하형

## 2. 갈리아노 컬렉션의 헤드웨어 디자인의 내적 특성

이상과 같이 관찰된 외적특성을 바탕으로 갈리아노 컬렉션의 헤드웨어 디자인의 내적 특성을 추론하였으며, 연구자가 도출한 범주는 확장적 과장성, 기존형의 도입과 해체적 재구성, 이질적 모티브의 혼성, 소재의 환치, 형상인용과 모방, 순수추상 구성 등이다.

다의적 혹은 다양성의 특징을 갖는 갈리아노 작품의 특성상 작품에 따라서 일부는 한 가지 이상의 도출된 내적 특성을 가지는 경우가 있음을 밝혀둔다.

분석된 갈리아노 헤드웨어 디자인의 외적 특성과 내적 특성은 상호 연결되는 관계를 가지며,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확장적 과장

과장은 양적 과장을 뜻하는 것으로 볼륨이나 크기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헤드웨어의 양적과장은 시각적인 충격과 주목을 주어 의상 전체 분위기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확장은 역동적 공간을 창출하여 평면이나 입체의 공간적 확보나 점유에 있어 시각적 인지에서 크고 지나침이 확연히 구분되어진다.<sup>19)</sup>

갈리아노의 확장의 특징은 헤드웨어 전체의 볼륨감을 확대하는 양적(量的) 과장과 기존 모자의 형태 중 일부분을 확장하여 새롭게 하는 방법인 부분적 과장으로 나타난다.

디올-20003S/CTR, 갈리아노-2003S/RTW, 갈리아노-2007S/RTW를 비롯해 여러 컬렉션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특성이다.(RTW 는 ready to wear, CTR은 couture, S는 summer, F는 fall, 이하 같음)

먼저 양적과장은 <그림 2>,<그림 18>처럼 의상 자체의 볼륨도 크고 그에 따라 헤드웨어의 볼륨을 과장하여 극단의 확장적 과장 패션을 창조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림 17>과 같이 기하학적 추상성에 입각한 헤드웨어이기도 하지만 의상은 피트한 드레시 라인에 헤드웨어 크기를 과장하여 상호 극단적 대비에서 오는 불균형, 부조화가 새로운 감각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부분적 과장은 기본구조에서 어느 일부분을 확대 과장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림 14>처럼 귀덮개(era flap)가 달린 디어스토커(deerstalker)에 귀덮개 만을 무릎길이까지 확장하여 새로운 디자인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나 브림(brim)에 비해 크라운(crown) 부분을 비정상적으로 부풀려 확대하는 방법이 여러 곳에서 보여진다.

확장적 과장과는 반대로 축소적 과장도 나타나는데, 종절모나 캡, 왕관, 티아라의 크기를 아주 작게 하여 마치 머리 위에 꽂는 장식품처럼 사용하기도 했다.

크기를 상식적인 볼륨에서 벗어나 아주 크게 하거나 아주 작게 하는 극단적인 갈리아노의 헤드웨어는 구조나 형태 이전에 인지적 측면에서 충격적이고 때론 유머나 해악으로 패션 이미지를 드라마틱하게 고조시키고 있다.

### 2) 기존형(既存形) 도입과 해체적 재구성

기존형이란 기존에 있어왔던 민속적인 혹은 역사적인 헤드 드레스나 현대까지 사용되어 온 헤드웨어의 형을 말한다. 이미 있었던 혹은 있어온 헤드웨어를 도입하되 일부, 혹은 전체를 수용하여 파괴하고, 해체하고, 변형하여 재구성하는 방식을 연구자가 기존형의 도입과 해체적 재구성이라 명명하였다.

갈리아노의 작품들은 미니멀리즘의 전부향에서 벗어나 역사성, 민족성, 실험적 창조성을 바탕으로 해체와 왜곡, 재구성의 방법을 통해 형태, 색채, 소재, 디테일 측면에서 보여줌으로서 비정형성과 부조화, 다양한 색채 혼합, 과다 장식을 추구하여 현대패션의 다양성과 창의적인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 오늘날의 창조성은 과거에서 보여졌던 형태의 예술을 모방, 차용하거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디자이너의 경험 세계와 감수성, 조형의지 등이 복합되어 재창조함으로써 새로운 독창성을 부여하는데 비중을 둔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들이 융합되어 미적 영역이 확대되는 것은 포스트모던적인 경향이라 할 수 있다.<sup>20)</sup>

기존형의 도입과 해체적 재구성은 민속적, 역사적, 현대적의 세 가지 양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민속적 조형은 디올이나 갈리아노의 컬렉션



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헤드웨어 스타일인데, 최근 갈리아노-2009F/RTW의 러시아와 발칸을 주제로 한 컬렉션을 비롯해 중국, 일본, 몽골, 티벳, 인도, 팔레스타인, 예멘, 에스키모, 페루, 멕시코, 아메리카 인디안 등의 다양한 에스닉 스타일이 나타난다. 이상의 각 나라의 민속풍에 갈리아노 특유의 해체와 재구성으로 민속적인 것이 그대로 오기보다는 현대적인 것으로 재해석하거나 현대적인 컨셉과 믹스하여 새로운 민속풍을 창조하여 제시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그림 1>은 갈리아노-2004F/RTW로 예멘 민속풍의 타래머리와 헤드웨어에 현대의 정크 아트(junk art)적인 콜라나 환타캔, 팝아트적인 일상용품인 나이프, 포크, 스푼, 비닐랩 등을 장식하여 매치하여 현대적 요소를 첨가하기도 하였다. 선물상자나 신문이 인쇄된 여행용트렁크를 장식하여 전통과 현대미술이 교묘하게 혼합되어 있기도 하다. 갈리아노-2009F/RTW 러시아와 발칸의 민속풍에는 전통적으로 부의 상징이었던 코인(coin) 장식을 실제보다 많이 달아서 과장하였고 거기에 모자의 형태를 그런지(grunge)하거나 시스루(see through)한 소재로 환치하여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였다.

디올-2003S/CTR은 일본과 중국, 동양과 서양, 고대와 현대의 결합 등을 보여준 컬렉션인데 상상을 초월한 오버사이즈 룩(oversize look)에 <그림 2>와 같이 헤드웨어 역시 오버사이즈로, 구슬장식을 화려하게 치장하여 일본 전통 머리쓰개를 새롭게 하였다. 또한 이 컬렉션에서는 브림이 있는 현대화된 머리쓰개, 두 세 개 얹은 상투머리 모양, 일본 전통의 관(冠)의 복두(幞頭)를 빨간 플라스틱으로 형상화하여 머리카락을 감아올린 헤드웨어 등이 새롭고 신선한 느낌을 준다.

멕시코 스타일에서는 종교 의식에 착용된 대형 머리장식을 타조깃털로 만들어 재현하거나 다소 변형하여 디자인하고, 와이어 네트나 턱을 가로지르는 띠를 부착하여 현대적 요소를 첨가하기도 하였다. 현대인의 시각으로는 마치 추장이나 제사장 혹은 카니발이나 극장의 무희를 연상시키는 대형장식이다. 그리고 코요테 가죽과 타조깃털을 조합한 헤드웨어나 깃털과 구조물이 조합된 초대형 의식용 헤드웨어도 이색적이다.

몽골을 주제로 한 컬렉션의 헤드웨어는 코인장식이나 끈장식, 구슬로 엮은 부분 등 민속적인 모티브에 마치 바이커의 모자를 연상시키는 앞가리개 모양을 접목시켜 과거와 현재, 에스닉과 스포츠 모던이 결합된 이중적 이미지를 창출하였다.

모하크(Mohawks)족을 떠올리게 하는 페루식 니트 모자는 정수리에서 머리 뒤로 니트술로 갈기를 달아 늘어뜨리고 화려한 전통문양을 짜 넣어 민속간의 혼합을 추구한 재미있고도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페루의 민속 스타일은 디올-2005F/CTR에서도 나오는데 페루의 평평한 접시모양이나 뚜껑 모양의 민속 모자에 전통문양을 화려하게 새기고, 페루인의 프린지 장식을 모티브로 한 비비드(vivid)한 다색의 프린지 헤드웨어도 디자인되었다.

인도풍에서는 전통사리 안에 야구모자를 쓰기도 하였다.

그밖에도 헤드웨어로 사용하지 않는 민속 이미지의 요소들을 수용하여 헤드웨어로 디자인하는 경우도 많다. <그림 3>은 몽골인들이 머리에 물건을 이고 가는 풍속이 헤드웨어로 수용되어 마치 보따리를 인 모습으로 헤드웨어가 표현되었다. 그 외에도 일본의 민속품인 매듭장식, 연등, 대나무 껍질을 엮은 공예, 부채, 머리빗, 지우산, 종이접기(오리가미(折紙))등이 헤드웨어로 수용된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서양 복식의 역사에서 차용한 스타일의 헤드웨어인데, 크게 유럽풍과 이집트풍이 관찰되어진다. 구성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고유의 이미지를 파괴하고, 해체하여 나름대로 현대적 시각으로 재구성하는 해체주의적 테크닉이 발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집트풍은 디올 -2004S/CTR에서 보여준 스타일로 고대 이집트 시대의 벽화나 유물의 스타일을 재현하였는데, 왕과 왕비의 다양한 왕관과 커치프(kerchief)를 포함한 두식류(頭飾類)를 비롯해 수호신들의 형상을 마스크로 제작하여 이집트를 컨셉으로 한 컬렉션에 극적인 효과를 주었다. <그림 4>는 벽화에 표현된 태양을 형상화한 관을 재현한 모습인데, 의상에서는 꾸뛰르적인 현대의 드레스와의 접목이 시도되었으나 헤드웨어는 역사적인 형태를 그대로

로 재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럽풍의 경우는 중세의 버터플라이 헤드드레스(butterfly headdress)를 재현한 헤드웨어를 비롯해 <그림 5>는 중세의 갑옷의 두식을 변형한 것인데, 머리와 목, 어깨까지 덮어 내려오는 코이프(coif)형으로 코일(coil)을 연결하여 만든 체인 메일 후드(hood of chain mail)<sup>21)</sup>를 화려하게 비즈, 크리스탈 등으로 만들고 그 위에 글라스로 만든 왕관이나 띠를 둘러 독특한 중세의 여전사를 연출하였다. 아울러 브론즈 투구를 그대로 가죽으로 재현한 모습도 있다. 유럽의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왕관이나 티아라(tiara)는 그대로 재현되거나 혹은 작은 크기로 축소하여 장식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영국 근위 보병의 대형모자(bearskin, busby)는 여러 콜렉션에서 나타나며,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애용했던 비콘햇(bicorn hat)은 그대로 혹은 소재를 달리하여, 예컨대 <그림 6>처럼 굵은 니트로 짜거나 술이나 보석 장식등을 첨부하여 새롭게 재구성하여 자주 등장한다.

19세기 후반에 사용된 머리를 감싸는 후드와 목을 덮고 가슴이나 어깨를 덮는 모양의 코이프는 니트로 만들어 팝아트적인 문양을 넣어 새롭게 변신하기도 했다.

<그림 7>은 짧은 단발의 뱅(bang) 스타일 모양의 틀을 만들어 전체에 스팅글을 질서있게 배열하여 마치 스팅글 투구 같은데 은색, 검정, 금색 등으로 표현하여 여성적이면서도 관능적으로 표현되었다.

셋째, 현대적인 헤드웨어의 도입과 해체적 재구성으로는 현대에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모자 스타일에 다른 모자 스타일을 결합하여 새롭게 하는 것과 기존의 모자스타일에 어느 일부분의 형태를 변형하거나 크기를 소형화하거나 대형화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 관찰된다. 전자의 경우는 페전트(peasant) 스카프를 두르고 그 위에 카우보이 햇(cowboy hat)을 착용하거나 챙을 롤 업(roll up)시킨 니트 모자에 얼굴을 가리는 고전적인 망사 베일을 매치거나 네트(net) 클로슈에 여우털을 매치하거나, 낭만적인 케플린(capeline)스타일에 신문지를 접어 부착하여 정크 아트적인 컨셉과 믹스 앤 매치하거나 소방수 모자에 여우꼬리털을 달기도 하고, 남

성모자인 톱 햇(top hat)에 툴(tull)을 리본처럼 감싸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웨이브가 아주 가는 가모에 투박한 털실모자를 쓰고 그 위에 베일을 두르고 많은 보석 브로치와 장식들을 달아 여러 가지 이질적인 컨셉을 뒤섞어 놓기도 하였다.

후자의 경우는 귀덮개가 달린 털실뜨개 모자인 디어스토커가 그 예인데(그림 14), 귀덮개 부분만 무릎 아래까지 길게 늘어뜨려 새로운 감각을 주고, <그림 15>처럼 크라운이 높은 실키한 톱 햇을 쭈그러뜨리고 그 위에 팝아트적인 플라스틱 꽃 한송이를 꽃아 서커스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그밖에 남성모자인 훔부르크(homburg)를 아주 작게 만들어 한쪽으로 기울여 착용하거나 왕관이나 티아라를 소형으로 만들어 마치 머리핀 장식처럼 착용하기도 했다. 2008F/CTR은 머리에 꼭 맞는 캡을 한 쪽에만 귀덮개 모양의 터널형을 부착한 언벨런스만의 독특한 디자인이 선보이고 있으며, 밀짚모자를 짜다가 말아서 끝에 짜올라가던 밀짚이 그대로 술처럼 장식된 디자인이나 밀짚단의 위 부분만 묶어 고정된 후 그대로 착용하여 만드는 초기작업 형태를 연상시켜 미완성의 완성인, 구성방식의 해체적 발상을 엿볼 수 있다.

### 3) 이질적 모티브의 혼성(混成)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구성 요소들을 짜 맞추어 믹스 앤 매치 스타일로 헤드웨어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요소가 합친 것을 말하는 일종의 하이브리드로 설명할 수 있다.

질서, 일관성, 체계적 통합성에 익숙한 사람들의 시각은 이제 무질서, 모호성, 차이를 강조하는 형상과 이미지라는 인지의 틀을 습득해야하는<sup>22)</sup> 시대로 변모하고 있다.

갈리아노는 기존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혼합, 대비 등으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어울리지 않는 소재의 결합, 기발한 것들의 나열과 절충, 다양성을 추구하는 전위적이면서도 단편주의, 획일적이고 이상적인 미의식에 도전하여 여성적인 이상미의 추구가 아닌 변형의 원리를 추구하는 실험적인 창조성을 보여준다.

예컨대 원시적인 느낌의 가공되지 않은 천연 털 가죽에 비비드한 색상의 플라스틱 코사지와 스트로우 등을 장식으로 달아 이질적인 컨셉을 믹스 앤 매치 하거나 로우 게이지의 거친 니트로 짠 캐주얼 스타일의 모자에 엘레강스한 스타일에 사용되는 네트 베일을 씌우는 것, 소방관모자에 여우꼬리털 달기, 기하학적인 프레임 위에 여성스럽고 우아한 꽃모양 코사지를 부착하는 것, 후드를 쓰고 그 위에 모자를 겹치거나 굵은 네트 클로슈(cloche)에 뜻밖에 모피털을 달거나, 로맨틱한 카풀린 스타일에 정크 아트(j 적인 신문지를 접은 다발을 묶고, 예멘 민속풍에 전통적인 코인장식을 달고 팝아트적인 나이프나 포크 같은 일상용품을 매달거나(그림 1), 거기에 의외로 서양식 모자인 페도라를 씌우거나, 충격적인 발상으로 여행용 가방을 엮는 등, 수 없이 다양한 도전과 가능성, 그리고 실험적 방법을 볼 수 있다. <그림 2>는 크리스탈 구슬로 만들어진 갑옷의 체인 메일 후드로 독특한 중세의 여전사를 연출하였는데 뜻밖에도 그 머리 위에는 해마들이 서있는 모습으로 왕관을 만들어 씌웠다.

다음으로는 이질적인 여러 가지 오브제나 모티브를 마구 섞어서 구성하는 방식인데 <그림 13>은 수세미 같은 가모에 비닐이나 패브릭 등을 꽃과 잎으로 코사지 형태로 만들어 붙이고, 보석 브로치에 큰 리본을 단 펀넬 햇(funnel hat)인데 보석과 코사지, 리본 등이 상호간에 어울리지 않는 부조화스런 느낌으로 마구 뒤섞은 듯하다. <그림 1> 역시 예멘전통과 팝아트적인 일상품이 뒤섞인 모습이고, 여러 개의 코카콜라 캔에 식물인 아이비 넝쿨을 드리우고 투명 비닐랩으로 감싸는 모양의 두건 등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질적인 것들을 조합하여 부조화스런 소재들을 조화시키지만 창조성의 무한한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

#### 4) 소재의 환치(換置)

소재의 환치는 기존에 있는 헤드웨어의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되, 소재를 다른 것으로 바꿈으로 해서 전혀 새로운 디자인으로 만드는 특성을 지칭하였다.

외적특성에서 밝힌 디올-2003S/RTW의 가모형 헤

드웨어는 머리카락의 한 가닥 한 가닥을 가죽이나 깃털, 비즈, 합성사로 소재를 환치하여 표현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갈리아노는 머리카락을 헤어스타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머리카락을 디자인화하여 다르게 표현하였다. 이는 머리카락인지 헤드웨어인지 분간하기가 모호한 형태를 띄는데 갈리아노의 탈경계적인 시각이 독창적으로 발휘된 디자인으로 여러 가지 헤어스타일들을 다양한 소재로 재현하여 가모의 모습을 지닌 헤드웨어로 창조되었다. 디올-2003S/RTW에서 보여준 가모형은 광택나는 비닐소재를 가늘게 잘라 뱅 스타일의 롱 스트레이트 헤어처럼 만들거나 작은 비즈를 연결하여 머리카락 느낌이 나도록 뱅 스타일의 롱 스트레이트 헤어 모양의 헤드웨어를 착용하여 관능적이고 도발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그림 12). 갈리아노-2009S/RTW에서도 가모형이 대거 등장하여 눈길을 끄는데 마치 수세미처럼 아주 가는 웨이브를 한 머리카락모양의 합성실을 가지고 단발 길이 정도의 다양하고 풍성한 컬링헤어를 만들어 헤드웨어로 사용하고 그 위에 빅 사이즈의 클로슈를 씌운 것도 있다. 헤어인지 헤드웨어인지 분간하기 힘들어 모호하고, 블랙을 비롯해 머리로는 사용되기 어려운 핑크, 오렌지, 옐로우 그린 등이 과감히 채택되었다 (그림 13). 또한 갈리아노-2002F/RTW에서는 짐승의 털을 이용해 부풀린 머리카락처럼 만들어 야성적인 이미지를 연출하여 머리카락인지 헤드웨어인지 불분명한 모습도 볼 수 있다.

가모형 이외로는 평범한 캐스크(casque) 형태의 모자를 쿠킹 호일 같은 구김있는 메탈릭 소재로 바꾸거나, 통상 방울달린 코바늘 니트모자 형태를 가죽을 가늘게 실처럼 오려 연결하고, 가죽실 방울을 달아 새로운 디자인으로 만들기도 했다. 탐 햇(tam hat)을 여러장의 환편니트 조각으로 연결하여 그런 지한 감각으로 바꾸거나, 탐 햇을 굵은 니트로 짜서 캐주얼하고 투박한 느낌을 주고 그 위에 시스루한 베일을 씌우고 화려한 브로치와 펜던트로 장식하여 새롭게 하였다. 통상 이렇게 엘레강스하고 럭셔리한 컨셉을 추구할 때 탐 햇은 펠트나 울, 실크 등의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통념적인데 반해 이를 거부하고 기존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롭고 실험적인 발상으로

탐 햇의 소재를 굵은 니트 편성물로 환치하였다.

그 밖에 검은 실크의 비콘 햇을 로우 게이지의 거친 천 루프로 짜고 깃털을 꽃아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기도 하였으며, 가는 스트로 다발을 엮어 그런지한 비콘햇을 만들어 한쪽으로 기울게 착용하여 전혀 다른 비콘 햇을 창조하기도 하였다.

<그림 16>은 네트워크(network)으로 머리를 한번 감싸고 그 위에 화려한 보석 펜던트를 옷핀으로 연결하여 콜(caul)을 만들었는데 콜은 일종의 망사 캡으로 중세시대에는 금세공자수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sup>23)</sup> 갈리아노는 그물망을 옷핀 연결망으로 소재를 환치하여 모던하고 대담하며 화려한 콜로 재탄생시켰다.

갈리아노-2008F/RTW은 다양한 색상의 펠트몽치를 가는 망으로 감싸 고정하여 베레(beret)나 커다란 카프린처럼 만들어 이색적인 모자를 만들어냈다. 마담 버터플라이를 주제로 한 컬렉션에서는 동양적인 쿨리 햇(coolie hat)을 가는 나뭇가지를 감아서 만들거나 일본 전통식 울림머리에 머리꽃이 장식을 보석 장식 대신 종이 조각과 스트로 매듭으로 환치하여 일본적인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갈리아노-2008S/RTW에는 머리에 꼭 맞는 헬멧(helmet) 모양을 은색이나 검정색 등의 작은 스펅글로 만들어 마치 반짝이는 단발머리 같은 느낌으로 연출해 남성적인 헬멧이 그 어느 것보다 여성스럽고 관능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었다(그림 7).

##### 5) 형상 인용과 모방

이는 자연의 형상이나 사물 등에서 그 모습을 인용하거나 혹은 그 모습의 일부를 그대로 가지고 오거나 비슷한 모습으로 모방하는 디자인의 특성이다. 이는 일종의 패로디라고 할 수 있는데, 갈리아노는 사물이나 특정한 물건의 형태를 그대로 옮겨오는 스타일이나 사물의 형상을 본따서 모방하여 디자인하기도 하였다. 모자에 등장하기 어려운 사물들이 그대로 모자의 장식 혹은 모자의 형태를 이루는 경우가 많아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의외적이라는 신선한 충격을 불러일으킨다.

먼저, 사물의 형상을 모방한 것으로는 외적 특성에서 논의한 인공물 형상적인 특성과 부합되는 내용으

로 사물의 고유한 용도나 특성을 부정하고 헤드웨어로 형상을 인용하는 갈리아노의 방식을 말한다.

특히 디올-2008S/CTR의 헤드웨어들은 다양한 대형크기의 전등갓 형태(그림 8)와 받침접시 모양의 모자들이 스테판 존스(Stephen Jones)에 의해 무게를 이겨내고 잘 지탱될 있도록 제작되었는데 광택나는 조각(chunks, paillettes),<sup>24)</sup> 엠보싱(embossing)된 가죽, 깃털, 비즈 등으로 표면을 이루고 있다.

디올-2007F/ CTR은 사물을 그대로 머리 위에 옮겨다 놓은 듯한 헤드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림 9>처럼 발레용 토슈즈를 리본 위에 그대로 올려놓거나, 아이 마스크에 깃털이나 리본 등을 장식하여 헤드웨어로 사용하거나 미술용 파레트에 그림물감이 있고 붓이 꽂혀있는 모습을 형상화하여 머리에 장식하였으며, 악기인 하프 모양을 비즈로 제작하여 헤드웨어로 디자인하기도 했다.

그밖에 엘사 스키아빠렐리(Elsa Schiaparelli)의 초현실주의적인 모자를 연상하게 하는 깔때기 모양의 모자도 이색적이며 전술한 여행용트렁크와 선물상자, 활, 대형리본, 가면, 지우산, 부채, 연등 등도 관찰된다.

다음으로는 자연에서 모티브를 얻어 헤드웨어로 디자인된 것인데 자연물의 형상 인용은 꽃이 압도적으로 많아 다양한 꽃 모양이 수많은 소재와 색상과 컨셉으로 다채롭게 표현되었다. 여성을 아름답게 표현하고자하는 목표와 과거지향의 에로틱한 표현을 전면에 두고 여러 요소들을 흡수하여 새롭게 현대적으로 풀어나가는 로맨티시즘을 추구하는 갈리아노의 마인드에 꽃이라는 주제는 이상적인 모티브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꽃의 소재는 코사지가 가장 많으며 자연의 꽃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것이 많고, 같은 꽃이라 하더라도 표현되는 이미지에 따라 서구적인 느낌이 나기도하고, 매화나 벚꽃 등은 동양적인 에스닉한 이미지로 표현되기도 한다. 동양적인 컨셉을 부각시킬 때, 특히 일본적인 이미지를 표현할 때는 소나무가지나 대나무 꺾질, 밀짚 등이 그대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모던하거나 팝 아트적인 꽃, 극사실적인 꽃, 단순화한 꽃 등이 코사지, 비즈, 스펅글, 페브릭, 플라스틱, 메탈, 종이 등이 다양한 소재와 모양으로 표현되었다.

동물의 모습을 디자인화한 헤드웨어도 많이 등장하는데 디올-2006F/ CTR은 박쥐, 해마, 물고기, 게, 가재, 소라 등의 모습을 가죽, 혹은 비즈, 페브릭 등으로 모양을 만들어 장식하였다. 그 외 일본적인 나비, 팝아트적인 거북이 모습도 보여진다.

아울러 <그림 10>과 같이 새둥지에 새가 앉아있는 모습을 그대로 사실적으로 재현해, 변형되지 않은 채 자연의 일부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도 많다.

그 외에 깃털을 이용해 새의 날개를 형상화하거나 얼굴이 새의 머리처럼 연상되게 얼굴전체를 감싸며 깃털을 배치하여 새의 머리를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디자인도 이색적이다.

#### 6) 순수 추상 구성

이 스타일은 모자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스타일로서 모자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마치 하나의 조각이나 조형물처럼 구성된 형태를 말한다. 기하학적인 형태로부터 워라 규정짓기 어려운 비정형적인 형태에 이르기까지 창의적이며, 소재도 스틸, 메탈, 페브릭, 펠트, 털, 플라스틱, 가죽, 글라스 등 아주 다양하다. 또한 기하학적인 형태와 사실적인 모티브가 결합되거나 내추럴한 모티브와 팝아트적인 모티브를 결합시키는 등 이질적 컨셉의 믹스 앤 매치 방식도 찾아 볼 수 있다.

2007S/ RTW의 헤드웨어는 가장 순수한 추상구성으로 마치 추상적인 현대조각을 보는 듯하며, 아방가르드하다. 아방가르드는 전대의 가치체계와 전통 일반에 대하여 부정하려는 정신으로 인해 새로운 미적가치의 추구, 새로운 조형질서의 모색, 그리고 새로운 표현방식의 실험을 주장하는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현대예술이다.<sup>25)</sup> 헤드웨어는 거의 대부분 확대 과장하여 크기가 거대하며 비닐, 철망, 와이어, 네트,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팝아트적이거나 키치적인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어떤 디자인은 생일선물 포장에 달린 리본 모양처럼 보이거나 혹은 남성용 페도라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것들이 전부 구조물 이상으로 견고하게 보인다.<sup>26)</sup> 그러나 이색적이게도 의상은 피팅감이 있는 엘레강스풍의 롱드레스에 매치시켜 믹스 앤 매치의 코디네이션을 보여주며 추상구성적인 헤드웨어가 더욱 돋보였다(그림 17).

2001S/ RTW에는 겹겹의 곡선으로 말아 올리거나 접어 올린 듯한 모양으로 리듬감있는 움직임을 느끼게 하여 상승하는 듯 한 울동감 있는 추상구성의 헤드웨어를 볼 수 있다. 갈리아노-2003S/ RTW 인도를 컨셉으로 한 컬렉션에서는 커다란 구형의 조형을 머리 위에 한 개 혹은 두 개를 얹고 머리카락을 감아 고정시키거나 그위에 다시 사리를 두르기도 하여 전통과 아방가르드의 묘한 조화를 추구하였다(그림 18). 또한 대형사이즈의 종이를 접어 만든 것 같은 구성물을 머리에 얹기도 했다. 갈리아노-2001S/RTW에서도 확장적 과장이 된 추상구성이 일부 보여진다.

디올-2005S/ CTR의 엠파이어 드레스들에 착용된 헤드드레스는 기하학적인 반원형이나 폴드(fold)된 형상을 구성하고 그 위에 사실적이고 정교한 꽃 모티브를 조화시키기도 하였다. 디올-2009S/ RTW에서는 주로 파도나 물결같은 스크롤(scroll)된 모습을 형상화하여 머리에 올려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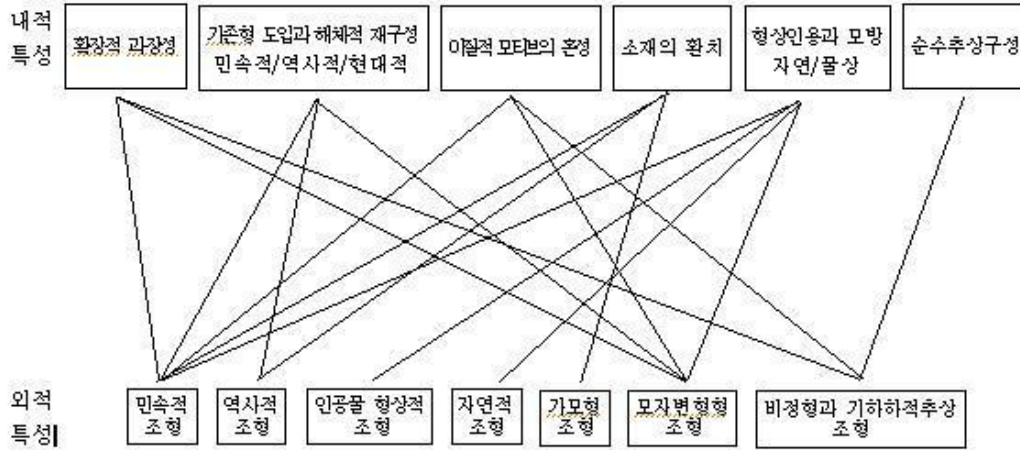
그 밖에 메드 맥스(med max)스타일에서는 짐승의 털가죽 조각, 나뭇가지, 깃털 등이 포함되어 비정형적인 형태로 장식되기도 하였다. 그밖에 입술모양, 삼각 입체형 등 기하학적인 형태에서 비롯된 디자인도 볼 수 있다.

이상으로 연구된 갈리아노의 헤드웨어 디자인의 형식인 외적 특성과 내용이 되는 내적 특성은 상호 밀접한 연결 관계를 갖으며 이 관계 양상을 <그림 19>를 통하여 제시하였다.

##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의 크리스찬 디올 및 존 갈리아노의 컬렉션 53회를 전부 조사하여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캠페인이나 핫의 스타일이 제시된 컬렉션을 제외하고 총 35회의 컬렉션에서 880작품의 자료를 수집하여 헤드웨어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디자인의 특성의 연구는 형식이 되는 외적특성을 먼저 관찰하고 파악한 후에 내용이 되는 내적특성을 규명하였는데, 분석된 갈리아노 헤드웨어 디자인의 외적 특성과 내적 특성은 상호 연결되는 관계를 가진다.



<그림 19> 갈리아노 헤드웨어의 외적특성과 내적특성의 상관관계

갈리아노 헤드웨어 디자인 작품들의 조형을 살펴 본 결과 민속적 조형, 역사적 조형, 자연 형상적 조형, 인공물 형상적 조형, 가모형 조형, 추상적 조형 등으로 외적인 특성을 분류할 수 있었다

분석된 외적 특성을 바탕으로 갈리아노 컬렉션의 헤드웨어 디자인의 내적 특성을 추론하였으며, 연구자가 도출한 범주는 확장적 과장성, 기존형의 도입과 해체적 재구성, 이질적 모티브의 혼성, 소재의 환치, 형상인용과 모방, 순수추상 구성 등이다.

1. 확장적 과장: 과장은 양적 과장을 뜻하는 것으로 볼륨이나 크기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갈리아노의 확장의 특징은 볼륨감을 확대하는 양적 과장과 기존 모자의 형태 중 일부분을 확장하여 새롭게 하는 방법인 부분적 과장으로 나타난다.
2. 기존형(既存形) 도입과 해체적 재구성: 기존형이란 기존에 있어왔던 민속적인 혹은 역사적인 헤드웨어나 현대까지 사용되어 온 헤드웨어를 말한다. 이미 있었던 혹은 있어온 헤드웨어를 도입하되 일부 혹은 전체를 수용하여 파괴하고, 해체하고, 변형하여 재구성하였다
3. 이질적 모티브의 혼성: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구성 요소들을 짜 맞추어 믹스 앤 매치 스타일로 헤드웨어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요소가 합친 것을 말하

는 일종의 하이브리드로 설명할 수 있다. 어울리지 않는 소재의 결합, 기발한 것들의 나열과 절충, 다양성을 추구하는 전위적이면서도 단편주의, 획일적이고 이상적인 미의식에 도전하여 여성적인 이상미의 추구가 아닌 변형의 원리를 추구하는 실험적인 창조성을 보여준다.

4. 소재의 환치(換置): 소재의 환치는 기존에 있는 헤드웨어의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되, 소재를 다른 것으로 바꿈으로 해서 전혀 새로운 디자인으로 창조하였다.
5. 형상 인용과 모방: 이는 자연의 형상이나 사물 등에서 그 모습을 인용하거나 혹은 그 모습의 일부를 그대로 가지고 오거나 비슷한 모습으로 모방하는 디자인의 특성으로 일종의 패로디(parody)라고 할 수 있다. 자연이나 사물의 형태를 그대로 옮겨오는 스타일이나 사물의 형상을 본따서 모방하여 디자인하기도 하였다.
6. 순수 추상 구성: 이 스타일은 모자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스타일로서 모자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마치 하나의 조각이나 조형물처럼 구성된 형태를 말한다. 기하학적인 형태로부터 워라 규정짓기 어려운 비정형적인 형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소재도 스틸, 메탈, 페브릭, 펠트, 털, 플라스틱, 가죽, 글라스 등 아주 다양하다. 또한 기하학적인 형태와 사실적인 모티브가 결합되거나 내추럴한 모티브와

팝아트적인 모티브를 결합시키는 등 이질적 컨셉의 믹스 앤 매치 방식도 찾아 볼 수 있다.

이상으로 갈리아노의 헤드웨어 디자인은 현대 대부분의 다른 디자이너처럼 포스트모던적인 특성을 지니며, 연구된 바와 같이 갈리아노 특유의 해체와 재구성 특징들이 발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 패션 콜렉션의 헤드웨어가 어떻게 디자인되고 있는지를 부분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향후 의복 뿐 아니라 의복과 연계된 액세서리의 다양한 분야들이 총체적이고 다각적으로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1) 모자에 관한 선행연구는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함.
- 2) 차은진·박민여(2006), “1990년대 여성구두디자인의 특성”, *한국의류학회지*, 30(6), pp.840- 850.
- 3) 이윤정(2003), “존 갈리아노 패션쇼의 메이크업의 미학적 연구”, *한국 인체예술 학회지*, 4(2), pp.270-281.
- 4) 진경옥(2005), “존 갈리아노 패션쇼에 나타난 현대패션코디네이션 특성”, *복식*, 55(6), pp.54- 59.
- 5) *페어차일드 패션대사전* (부산: 노라노 출판, 2006), p.249.
- 6) Mary Brooks Picken(1973), *The Fashion Dictionary*, New York: Funk&Wagnalls, p.186.
- 7) 김은실·배수정(2003), “필립트레이시의 작품에 나타난 모자의 조형성과 미적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53(3), pp.107-119.
- 8) 김은실·배수정(2005), “현대패션에 나타난 모자 디자인의 경향에 관한 연구”, *복식*, 55(3), pp.108-121.
- 9) 유현정·김민자(2006), “20세기 이후 여성모자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복식*, 56(9), pp.50-55.
- 10) 이영재·김주희(2008), “영화에 나타난 여성모자 디자인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 학회지*, 14(1), pp.307-316.
- 11) 류지원·임인숙(2000), “헤어장식을 위한 조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6(1), pp.5-13.
- 12) 권대순·임인숙(2001), “헤어 연출의 창의적 방법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2(2), pp.41-63.
- 13) 이순홍 외 (200), *세계 복식과 패션 정보*, 교문사 p.282.
- 14) 김명섭(1998),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의 작품 세계와 미적 특성”.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3-24.
- 15) Colin Mcdowell(1997). *Galliano..* Lodon: Weidenfed & Nicolson, preface.
- 16) 김명섭, op.cit., pp. 59 - 72.
- 17) 박혜원(1999), 존 갈리아노 디자인 연구, *패션비즈니스*, 3(2), pp.19-29.
- 18) 구미지(2001), “디오르 작품에 대한 갈리아노의 현대적 재해석에 관한 연구”, *복식*, 51(8), p. 45.
- 19) 진경옥, op.cit., pp.54 - 59.
- 20) 성광속(2003), “복식 확대현상의 미적가치”,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9-10.
- 21) 이윤정(2005), “크리스찬 디올 패션과 광고에 나타난 메이크업 이미지 비교”,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25.
- 22) Claude Lamontage (2001). *Chain Mail Armored Knight*, Quebec:ADLM Inc, p.5.
- 23) 마이크 페이스튼(1999), *포스트모더니즘과 소비문화*, 정숙경 (역), 현대 미학사, p.10
- 24) *페어차일드대사전*, op.cit., p.256.
- 25) “Review”(2008.11.8),Christan Dior,2008S/CTR, <http://www.style.com>
- 26) 이정심(1994), “아방가르드 패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28
- 27) “Review”(2008.12.2),Christan Dior,2007S/RTW, [www.style.com](http://www.style.com)
- 28) 점수일(2009년 6월 3일)
- 29) 수정일(1차 : 2009년 7월 23일)
- 30) 게재확정일(2009년 7월 27일)